

복스

어린이 책꽂이

▶백제사 이야기=세련된 문화와 찬란한 역사를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고구려, 신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축소된 백제사를 재조명한 책이다. 제1대 백제왕조를 일으킨 온조왕에서부터 제31대 마지막 왕인 의자왕까지의 이야기를 그렸다. <주니어 김영사·9천500원>

▶만화로 보는 세계의 명문대학(제1권 대한민국편)=초등학생들에게 대학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를 주기 위해 우리나라와 외국의 대학을 소개하는 시리즈. 제1권 대한민국편에서는 국내 주요대학들을 만화형식을 통해 재미있게 소개했다. <와이즈엔트·1만1천원>

▶소년왕=몽유병을 앓고 있는 소년 경표가 겪는 환상 세계와 현실세계를 교차시킨 역동적인 서사구조가 돋보이는 작품으로 제7회 문학동네 어린이문학상 대상 수상작이다. 슬픔도 기쁨도 모두 삶의 일부라는 메시지를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일깨운 작품이다. <문학동네·9천원>

▶아름다운 우리말 동화=국어사전에 수록된 아름다운 우리말을 사용해 쓴 동화모음집. 우리말을 자연스럽게 익히도록 하기 위해 '우리말 익히기', '아름다운 우리말 퍼즐' 등이 한데 수록됐다. <영교출판·9천원>

▶생생한 그림으로 보는 위대한 문명-로마편=숨겨진 고대문명을 생생한 그림으로 만나는 시리즈로, 고대로마문명을 마치 눈앞에서 보는 것처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당시의 풍경을 그대로 담아낸 그림들이 곁들여 로마의 생활과 계급제도, 식생활과 놀이문화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계림북스·1만2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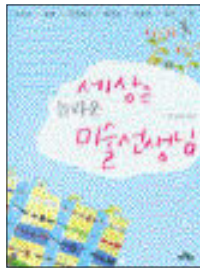
자연에서 미술을 배운다

세상은 놀라운... 김정애 지음

지금은 중학생이 된 채림이는 초등학교 3학년 때 갑자기 학교에 가지 않겠다는 폭탄 선언을 했다. 당황한 엄마는 갖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해결 기미는 좀처럼 보이지 않았다. 오랜 시행착오 끝에 엄마는 채림이와 함께 찾은 '자연' 속에서 그 답을 찾았다. 강가에서 바라본 물새, 손끝에 만져지는 풀의 느낌, 하늘에 붉게 물들던 노을 등을 보며 아이는 닫힌 마음을 열었고, 그것들을 그림 등으로 표현해 내며 행복해 했다.

엄마 역시 딸 아이로 인해 자연을 바라보는 또 다른 눈을 갖게 됐다. 어느 날 나무를 바라보며 박수근의 그림을, 발이랑에서는 민화를 떠올렸다. 고물과 한옥에서는 숨어있는 조형미(造形美)를 발견했다.

진직 미술기자 출신인 김정애씨가 쓴 '세상은 놀라운 미술선생님'은 자연과 일상이 어우러진 '세상'이라는 미술관에서 열린 마음으로 배우는 '미술' 이야기다.



책의 미술에 대해 다룬다.

또 3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집, 역사의 흔적인 문화재 등 삶 자체가 어우러진 미술에 관한 글을 실었다. 마지막 4부는 신앙, 신화, 아이들의 놀이 등 예술의 모티프가 되는 인간의 삶을 통해 들여다본 미술 이야기다.

책 속에 등장하는 곳은 모두 우리 삶의 일부다.

동물원은 동작표현 학습장

동네 고물상은 설치 미술관

일상의 삶 통해 본 미술이야기

저자는 모든 부모들이 아이와 함께 방문하곤 하는 동물원은 동작 표현을 익힐 수 있는 최고의 학습장이며 우리 동네 고물상은 기발한 설치 미술관이라고 이야기한다. 또 도심의 빌딩숲에서는 단순한 '직선'의 의미를 전하고, 흥정이 오고가는 재래시장에서는 옛 풍속화의 의미를 되새긴다.

자연 역시 훌륭한 미술교과서다. 지천에 핀 들꽃에서는 토끼의 뒷발자국을, 푸른 하늘과 별 속에서는 아이들이 그려는 과학 상상화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내간다.

여느 미술서처럼 이 책에도 미켈란젤로, 사할, 모네, 반 고흐, 세잔, 김홍도, 장욱진, 김기창 등 광범한 작가들의 그림이 즐비하지만 무엇보다 눈길을 끄는 건 책 갈고리 갈피마다 담긴 채림이와 친구들, 그리고 이웃들의 친근 작품과 아름다운 사진들이다.

또 책 말미에는 '아이들의 갤러리' 코너를 따로 실어 독자들도 아이와 함께 쉽게 따라해 볼 수 있도록 했다.

<아트북스·1만8천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높은 하늘과 반짝이는 별 역시 인간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미술의 멋진 모티프가 된다. 반 고흐의 대표작 '별이 빛나는 밤에'.



흔히 볼 수 있는 곡식이 훌륭한 그림 소재가 될 수 있다. 저자의 딸인 채림이가 곡식을 이용해 만든 '언덕 위에서 풀을 먹고 있는 사슴'

'야한 생각' 정리한 '마광수 삶'의 결정체

마광수 지음

소설 '즐거운 사라'로 필화사건을 겪었던 마광수 연세대 국문학과 교수 자신의 '야(野)한 생각'을 한 권의 책으로 정리했다.

책 제목인 '마광수'는 저자의 강의를 들은 학생들이 '마광수의 생각'을 정의한 단어다. 저자가 주장하는 야한 정신이란 '정신보다는 육체에, 과거보다는 미래에, 국수주의보다는 세계적인 보편성에, 집단보다는 개인에, 질서보다는 자유에, 관념보다는 감성에, 명분보다는 실리에, 확실적인 교조주의보다는 자유분방한 다원주의에 가치를 두는 세계관'이다.

야한 정신의 부재로 인해 우리 사회는 가장 선한 욕망인 '성욕'이 억압 받고, 가장 악한 욕망인 '권력욕'이 찬양 받는 기이한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저자는 특유의 자유분방한 사고방식으로 우리나라 문학과 학계 등 사회 전반에 대한 비판을 가하는 가 하면 대학시절의 사랑과 연애에 대한 개인적인 이야기들도 쏟아낸다. 저자가 그린 그림과 시들도 군데 군데 배치되어 질곡을 겪었던 '마광수 삶'의 결정체로 봐도 무방하다.

<인물과사상사·9천800원>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11명 뮤지션 소개한 음악 에세이

의미가 없다면... 하루키 지음

국내에 두터운 마니아층을 형성하고 있는 무라카미 하루키는 책과 음악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먹는 것을 즐기고 배를 움켜쥐면 서도 음악을 들었고, 그 감동에 의해 인생의 질이 확연히 변한 적도 있다고 고백한다.

6천장이 넘는 레코드를 갖고 있고 재즈 카페를 운영하기도 했던 하루키가 펴낸 '의미가 없다면 스윙은 없다'는 그가 본격적으로 써낸 음악 에세이다. 그의 이전 에세이였던 '재즈 이야기'의 글이 너무 짧아 아쉬웠던 이들에게는 보물같은 책이다. 장르를 가리지 않고 듣는 하루키는 이 책에서 클래식 음악가 슈베르트와 루빈스타인을 비롯해, 재즈 연주자 스탠 게츠, 미국 노동자 계급의 대변인 브루스 스프링스틴, 그룹 '비치 보이즈'의 브라이언 윌슨 등 11명의 뮤지션을 소개한다.

그의 글을 읽다보면 귀에 익숙한 슈베르트의 곡을 듣는 대신 '마음의 자유로운 흐트러짐'을 느낄 수 있다고 소개한 슈베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17번 A 단조'에 마음이 가고, 별 관심 없는 j-pop조차 한번 들어보고 싶은 충동이 생긴다. <문학사상사·9천500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내 인생 한편의 책

조창인 '등대지기'

소설가 조창인씨는 일찍이 '가시고기'로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던 작가다. 5년 전에 그의 다른 소설 '등대지기'를 읽고 평평 울었던 기억이 나 최근 들어 다시 한번 읽었는데 또 눈물을 흘렸다. 나이를 먹으면 감정이 둔해진다더니 그 말도 틀린 말인가 보다.

인간은 누구나 마음에 등대를 하나씩 가지고 산다. 슬픔 때나 외로울 때 나의 이정표가 되어주는 희망의 등대. 그 등대는 어머니가 되기도 하고, 배우자가 되기도 하고, 친구가 되기도 한다.

'등대지기'의 주인공 재우는 육지에서 8시간이나 떨어진 구멍도라는 섬에 등대를 지키는 기능직 공무원으로 발령받는다. 열악한 현재 생활에 불만을 갖고 있는 동료들과 달리 재우는 등대를 부정하는 것은 스스로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꼴이라는 생각으로 애착을 갖고 성실하게 생활한다.

물에 열매가 각자마다 너무 많은 갈등과 미움이 있었기에 재우에게는 육지와 멀리 떨어져 등대가 오히려 안식처로 느껴지기도 했을 것이다. 실타래처럼 얽혀 있는 가족과의 갈등은 형에 대한 어머니의 편에서 시작됐다. 공부를 잘 했던 형은 명문고에 진학했지만 재우는 생계를 위해 실업계 학교에 가야 했다.

원망스런 존재로 남아 있던 어머니는 차마에 걸렸고, 그 앞

'세상의 등대'가 되자



미웠던 형에 의해 다시 천덕꾸러기 취급당 받으려던 어머니는 재우에게 떠맡겨진다. 애정이 없다고 없다고 봐야 할 어머니가 차마에 걸린 것이다. 아무리 미운 어머니지만, 겉으로는 한없이 냉정하게 대했던 어머니지만, 차마 증상을 겪고 있는 어머니를 보는 재우는 연민과 자괴감에 어찌할 바를 모른다.

재우는 자신에게 눈곱만큼의 애정도 갖지 않고 있는 줄 알았던 어머니가 무의식 중에 보내는 사랑의 메시지를 느끼게 된다. '취중진담'이란 말이 있듯 인간은 과연 무의식 속에서 더 진실함이 나타나오는 걸까, 어머니는 가시고기나 어미 거미가 새끼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처럼 재우를 위해 죽음을 무릅쓴다.

그 무렵 재우가 지키는 등대는 현대화에 밀려 무인 등대로 바뀌고, 섬을 떠나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된다. 재우는 어머니로부터 얻은 사랑과 희망을 추서러 구멍도의 등대를 뒤로 한 채 물에 나가 자신이 세상의 등대가 되고자 한다. 차마를 통해 느끼게 된 어머니의 사랑을 실천하겠다는 것이다.

나에게도 차마가 있는 아버지가 있다. 아버지를 극진하게 모시고 있는 남동생에게 언젠가 '힘들지?'라고 물었더니 '아니, 우리 아이들이 할아버지를 기억할 수 있을 때까지만이라도 살아계셨으면 좋겠다'라고 답해 함께 눈시울을 붉혔던 적이 있다. 오직 아버지 버려 동생 집에 가봐야 할 것 같다.

지난해 조창인씨에게 강의를 했다가 "조용하게 끄는 생활을 계속하고 싶다"며 정중하게 거절당한 적이 있다. 지방 도서관장의 소박(?)한 부탁마저 뿌리치고 열중하고 있는 선생의 글이 '등대지기'처럼, 읽고 나서 마음 가슴을 부어줄 수 후련하게 울 수 있는 아름다운 또 한 권의 책이길 기대해본다.

안미영 <일곡도서관장>



정우부동산센터
상업지 5층상가 오피스텔
1200세대 APT 1층상가 16평
11층상가 187평
화순읍 농가주택 187평
관지역 대지 2100평(공공부지)
남구 송촌동 257평 매도
나주 도로 성산리 배밭 4700평
장흥읍 유치대천(전·임야)
진월동 APT 입주 상가부지 380평
나주 남평 서산리(드림강유원지)
나주공단 금곡 생죽지 458평
그린벨트 임야 14만 2000평 매도

한국공인중개사
장성지역
공정부지, 불류참고
전문중개
원하시는 지역에 원하는 평수대로 가능
※ 지면관계상 물건 올리지 못한점 양해바랍니다.
공장매도
정성군 삼계면 4차선점
대지 약 3000평
건물 1-철골조 2층 437평
건물 2-철골조 248평
매매가 12억(철골가능)
장성군 황룡, 동화, 공장부지 매물 급구함.

동림2지구공인중개사
동림2지구
대입대
병·의원
학원,상가
최고상권
최적조건
3면도로코너
2층~5층
70평, 135평
속 입점확정
1층 광주은행

빛고을엔드공인중개사
신도시중개사
신도시중개사
신도시중개사
신도시중개사
신도시중개사
신도시중개사
신도시중개사
신도시중개사
신도시중개사
신도시중개사

국민공인중개사
국민공인중개사
국민공인중개사
국민공인중개사
국민공인중개사
국민공인중개사
국민공인중개사
국민공인중개사
국민공인중개사
국민공인중개사

한일지도(주)
한일지도(주)
한일지도(주)
한일지도(주)
한일지도(주)
한일지도(주)
한일지도(주)
한일지도(주)
한일지도(주)
한일지도(주)

2006 최신 광주시 지번도책 판매중
이번에 새로 나온 광주시 책은
광주·진남 전지역
실사현역으로 지적도 부분별 맞춤제작 합니다. (빠다 속스기능)
<현재 판매중인 지번도 목록>
아주시, 순천시, 광양시, 광주광역시, 목포시, 나주시, 해남군, 장성군, 담양군, 화순군, 영암군, 무안군, 신안군, 진도군, 고흥군, 함평군, 영광군

광주·진남 전지역
실사현역으로 지적도 부분별 맞춤제작 합니다. (빠다 속스기능)
<현재 판매중인 지번도 목록>
아주시, 순천시, 광양시, 광주광역시, 목포시, 나주시, 해남군, 장성군, 담양군, 화순군, 영암군, 무안군, 신안군, 진도군, 고흥군, 함평군, 영광군
한일지도(주) <윤남주대표>
☎ 527-6310, ☎ 011-9433-6310